社 說

거꾸로 가는 포천시 人事행정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人事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포천시가 박찬억 前면장을 인사발령 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인사권자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단행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행정의 가장 큰 기본 틀은 법규를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법규를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외부관계, 즉 대주민관계에 기인하는 각종 사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대내적인 공직자 내부의 업무를 처리할 때도 반드시 조례 혹은 규칙이라는 규범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해라는 뜻이다. 인사행정 또한 행정의 큰 틀의 일부다.

그런데 포천시 인사권자는 박찬억 前면장을 인사발령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인사규칙 자체를 무시했다. 물론 인사규칙은 인사권자가 어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규칙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가 된 박 前면장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박 前면장은 내촌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지난 5월6일자로 박 前면장을 복직판정을 내렸다. 포천시 인사권자는 박 前면장의 직렬 임업사무관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포천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前면장은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5월7일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포천시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심의 변경하고, 포천시장은 5월16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포천시 훈령 제33호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5월16일자로 일부 개정된 포천시의회 사무국 인사규칙은 다른 조항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의회 전문위원중에서도 산업도시전문위원만 직렬을 개정했다. 인사규칙에 의하면 의회전문위원은 모두 3명으로 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또 개정이전 인사규칙의 경우 산업도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사발령 후 개정된 인사규칙에는 박 前면장이 가지고 있는 임업사무관을 포함시키고 지방농업사무관이라는 명칭을 삭제했다.

누가봐도 박 前면장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규칙 개정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인사규칙을 어겨가면서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다.

물론 포천시 관계자의 말처럼 박 前면장이 복직되었기 때문에 대기발령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지켜야할 인사규칙까지 어기면서 인사발령을 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인사권자가 박 前면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했다면 인사규칙을 개정을 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인사위원회가 복직판정한 것은 인사규칙까지 어겨가면서 보직을 주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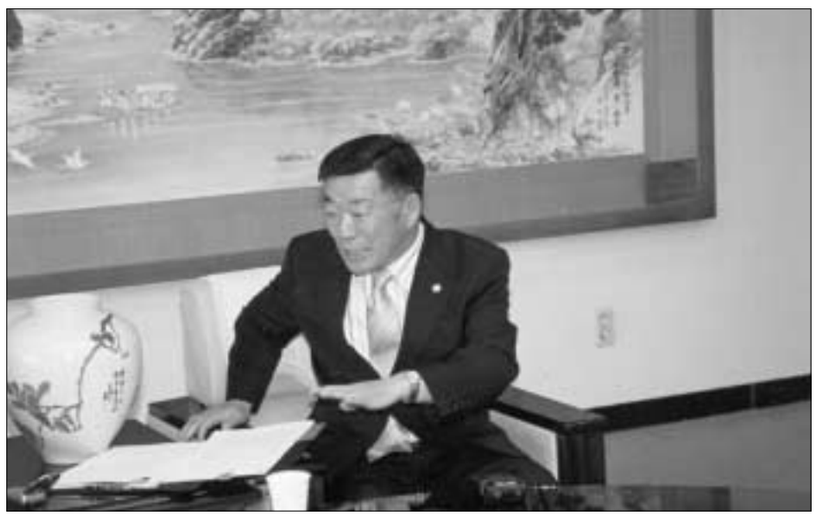
법이나 규칙 혹은 규범은 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같은 사회규범이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도 자체 인사규칙을 만들어 그 규정에 맞게 인사발령을 실시해야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다.

앞으로 즉흥적 발상에 의한 행정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된 행정을 추진하기를 포천시 관계자들에게 당부한다.

최대종 포천시의회 의장 사퇴 전말

반대세력과 조화 못 이뤄 의회 운영 차질
포천시, 人事규칙 위반 보직변경 밝혀져

포천시의회 최대종 의장이 지난 16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前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는 독립된 구성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원간 조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장직을 사퇴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최 前의장이 "박찬억 前내촌면장을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문제가 이번 사퇴의 발단이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의장직을 사퇴할 만큼 중대사안이었느냐는 반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천시의회 최대종 前의장이 의장직 사퇴 가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前의장 취임과정

최대종 前의장은 의장취임 10개월8일만인 지난 16일 의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평의원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최 前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의장직사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지난해 7월8일 의장선출 당시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기로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개인들끼리 했던 이야기로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월8일 제4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당시 3차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간신히 당선했다. 또한 당시 최대종 의장이 당선되고 부의장을 선출하려하자 7명의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최 前의장을 지지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해 왔던 최 前의장이 의장직 사퇴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접적 사퇴배경

최 前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했던 10개월8일 동안 동료의원들과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 前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까지도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잘못했다거나 사과할 마음은 없고 단지 15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민의의 전당 대변자인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제하기가 어려웠고, 비록 자신의 개인적 성격적 특징도 있지만 다른 의원들과 상생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모 의원은 최 前의장이 너무 집행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장이 누릴수 있는 일종의 특혜(?)를 사전에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일례로 2005년 본예산 심의 때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중 최 前의장의 출신지인 화현면 자치센터 앞 미니축구장우레탄 포장공사 1억원과 화현면 음악당 공사 1억원을 삭감한 점을 들었다.

▶직접적 사퇴배경

최 前의장의 직접적인 사퇴배경에는 본인이 밝힌바 대로 박찬억 前내촌면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박찬억 前면장이 지난 7일자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은 최대종 前의장과 의원 등 11명이 유럽 3개국 연수를 떠난 바로 다음날이다. 유럽 체류 기간중 의원들은 박찬억 前면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동료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모 의원은 동료의원들끼리 의장에 대한 비난의 말들은 있었지만, 의장과 별다른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 前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유럽순방기간 동안 다른 의원들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항의는 없었지만, 귀국 이틀 전에 부도덕한 사람을 하느냐 아니면 참신한 사람은 없느냐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는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3개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것은 지난 13일 금요일이었고, 15일 일요일 오후 7시경 최대종 의장이 사퇴한다는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포천시의회 제15회 임시회 본의회장에서 최 前의장은 사퇴서를 제출했다. 모 의원은 귀국 전 박찬억 前면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났다는 말을 들었지만, 귀국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귀국한 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 의원은 16일 월요일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박찬억 前면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의장이 먼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찬억 산업도시전문위원 보직변경 과정

박찬억 前면장은 지난해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3개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6일자로 복직판정을 받았다. 포천시는 지난 7일자로 포천시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발령했고, 5월9일자로 사령장을 받았다. 이 기간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일행이 유럽연수 기간이다.

또한 포천시는 박찬억 前면장을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무시한채 보직변경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박 前면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던 5월7일 이때까지만 해도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전문위원별 직위와 직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 운영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행정자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박 前면장이 의회 사무국에서 받는 보직인 산업도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前면장은 임업사무관으로 인사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직렬에 맞지 않게 7일자로 발령을 한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지난 16일자로 포천시 훈령 제33호를 공포 시행했다. 공포된 내용은 다른 전문위원 직렬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국의 경우 산업도시 전문위원만 기존 지방농업사무관을 삭제하고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했다. 결국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직렬에 맞지 않으니까 뒤늦게 인사규칙을 바꾸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최前의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박찬억 前면장 인사발령과 관련해 포천시장과 협의한 바는 있는가

- 인사권자인 시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실시할 때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 박 前면장을 천거해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시장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발령할 때는 의장과 협의하는 사항이지, 의원들이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다.

▶의장직을 사퇴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직접적인 이유는 박찬억 前면장과 관련 있다.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한 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장인사에 반발해 몇몇 의원들이 의장실에 찾아와 밀실정치를 한다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15일 저녁 의장직을 사퇴하기로 최종 결심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은 14명의 의원들이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없고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의원들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인사권 개입은 월권으로 잘못된 행위다

▶전문위원 한사람으로 의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퇴 배경에 다른 이유는 없는가

- 전문위원 한사람으로 선진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14명이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문제로 각 의원들의 몫이다. 최익규 전문위원이 6개월 간 병가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장이 박 前면장을 추천했다.

▶평소 동료 의원들과 문제는 없었는가

- 의원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의원들이 공무원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시민요구사항 공청회나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을 때 반대세력은 긁어 부스름을 왜 만드냐며 반대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의장선출 당시 1년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다른 의원에게 양보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는가

- 그런 말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간에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는 말 정도였다.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책임질만한 내용도 아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행보는

- 평의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차기의장 선거에는 개입할 의사가 없고 다만 소신있게 한표만 행사할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자동이체 임원 솔선수범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7차 임원회의서 결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현)는 지난 12일 오후 7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우이웃돕기 자동이체와 조사위원 조직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요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우이웃돕기 자동이체에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자▶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임원들의 노력 요구▶타 위원회의 춘계수련대회 개최 관련 조사위원회는 추계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포천신문 지면이용하여 조사위원회 활성화 도모 방안 마련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제1회 추경예산 329억8천만원 편성

포천시의회 제15회 임시회 예결특위 상정

포천시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0억8천8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12일 포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포천시가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예산 258억9천900만원, 특별회계 61억8천900만원 등 총 320억8천800만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회계의 경우 경제개발비가 123억9천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74%가 증액된 것을 비롯해 사회개발비 15.93%, 일반행정비 5.45%가 증액된 반면 지원및기타경비 37억8천900만원이 삭감되어 본예산 대비 34.71%가 감소되어 총 12.32%가 증액된 금액이다.

또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4억3천300만원을 편성해 본예산 대비 32.21%가 증액된 되었고 주차장관리 17.31%, 하수도사업 13.79% 등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1.01%가 증액편성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ㅁ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송수행료 5천만원▶포천시 지역발전현황 및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8천만원 ㅁ문화공보담당관실 ▶시정영상소식 제작 3천3백만원▶주요행사 홍보비 7천2백만원▶대한민국 명주축제 5천만원▶교육환경개선사업(시책추진보전금) 3억5천7백만원▶시립 일동도서관 인테리어공사 1억5천만원 ㅁ자치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 3천만원▶마을 정보사랑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보조사업) 8천6백만원▶농촌 관광정보화마을(금동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보조사업) 1억6천750만원▶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신규임용, 과 증설 등) 7천5백만원▶정보화마을(탄동리)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5천만원 ㅁ주민자치과 ▶제2회 포천마라톤 대회 3천만원▶성동2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보조사업) 4천만원▶소학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보조사업) 4천만원▶포천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보조사업) 12억원▶종합운동장 가로등 교체공사 3천5백만원▶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2억5천만원 ㅁ회계과 ▶가산면청사 건립공사(토지매입) 2억원▶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토지매입) 26억7천만원▶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 52억5천만원▶시청사 증축공사 54억2천만원▶물품 및 집기구입비(과증설 등) 7천만원▶국제회의장 빔프로젝트 구입비(2층 소회의실) 3천만원 ㅁ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5억5천만원▶태국군 참전기념비 보수 및 경관조명설치 등 3천3백만원▶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사업) 2억2억195만1천원▶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보조사업) 3천829만7천원▶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보조사업) 7천540만2천원▶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보조사업) 9천619만6천원▶장애인 생활시설 확충(보조사업) 4억2천8백만원▶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사업) 4억3천114만8천원▶공설묘지 경계측량비(33개소) 3천만원▶무료 경로식당 설치운영 3천만원▶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보조사업) 6천만원▶노인시설운영비(보조사업) 3억2천971만7천원▶전문요양시설 운영비(보조사업) 1억9천10만5천원▶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보조사업) 1억368만원▶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천5만4천원▶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영북, 관인농협-보조사업)1억8백만원▶경로당 신축(2개소 추가) 3억8천만원▶경로당 보수비 추가 3억원▶아동급식지원(보조사업) 9천374만4천원▶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비 지원(보조사업) 2억549만2천원 ㅁ환경보호과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보조사업) 4천8백만원▶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증액 2억4천6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거사리 등) 1억5천1백만원▶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ㅁ지역산업과 ▶공공근로사업(보조사업) 1억4천103만6천원▶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보조사업) 4억3천3백만원▶버스재정 지원사업(보조사업) 6천537만1천원▶운수업계 유가보조금(건설부 재원) 24억2천만원▶버스승강장 설치 2억4천2백만원 ㅁ농축산과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보조사업) 3억9천380만원▶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보조사업) 6천745만5천원▶선택형 맞춤농정사업(보조사업) 1억원▶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및 관광안내소 건립 연구용역 3천만원▶유기동물 처리사업(보조사업) 7천5백만원 ㅁ산림녹지과 ▶전시 공원화 사업 5천만원▶기념행사에 따른 꽃탑 및 꽃벽 설치 6백만원 ㅁ건설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보조사업) 1억7천만원▶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족분 4억5천만원▶내촌면 신팔2리 수해예방 사업 4천6백만원▶신북면 기지리 도로포장공사 3천6백만원▶일동면 사직리 소교량 및 도로포장공사 9천만원▶일동 기산7리 도로포장공사 4천만원▶수리시설 정비사업(보조사업) 2억9천5백만원▶수리시설 개보수사업(냉정양수장-보조사업) 15억원▶소하천정비사업(보조사업) 7천44만5천원▶하천제방유지관리비(보조사업) 5억3천442만원▶기지리 소하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2억원▶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억4천6백만원▶산정호수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보조사업) 4억원▶재해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3천640만3천원▶가로환경 정비사업(보조사업) 6억8천445만원▶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원▶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6천만원▶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 1억원▶마산-정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보조사업) 10억원▶이동교-의정부 시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보조사업) 14억2천만원▶도로표지판 정비(보조사업) 1억4천870만8천원▶상운아파트앞 인도설치공사 1억5천만원▶중문의대-동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보상비) 2억원 ㅁ도시과 ▶포천 체육공원 조성사업(특별교부세) 2억9천만원▶사은교 연결도로(보조사업) 8억2천5백만원▶반월교-한내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보조사업) 15억1천만원▶포천대교-반월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보조사업) 4억9천만원▶소흘읍 가로환경정비사업 8천만원▶일동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4억원 ㅁ건축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문아리, 지동지구-보조사업) 2억3천750만원▶ 산정호수 시범가로 환경정비(보조사업) 6억5천245만원▶송우 가구거리 가로환경정비(보조사업) 4억원▶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7천2백만원▶현수막 게시대 구조개선 공사 3천4백만원 ㅁ보건소 ▶길명리 진료소 신축(보조사업) 2억2천5백만원 ㅁ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3천6백만원▶읍면지소 리모델링 공사 6천만원▶전시 공업화사업 재료구입 3천만원 ㅁ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기획공연 및 홍보비(보조사업)1억6천205만7천원▶제1회 아시아미술제 대비 전시동 2층 마감공사 3억원 등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집국 (031)542-1506 편 집 인 구 봉 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 집 국 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 쇄 인 김 규 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